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 대목장 박영근씨

“후손들에 보물 남긴다는 마음으로 사찰 짓습니다”

수십년간 목축 대패질을 해온 목수들은 손가락 매듭이 2개 뿐이다. 일반인들의 매듭은 3개지만 목수들은 어릴 때부터 대패질을 오래하다 보니 연한 피부인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매듭이 밀려 돌쩌매 매듭과 합쳐져 버린 것이다. 8일 오후 담양군 봉산면 작업실에서 만난 박영근(56) 대목장(大木匠)의 손가락도 마찬가지였다. 두툼한 굳은살로 뒤덮인 그의 손을 보노라면 매듭은 물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도 마치 동물의 물갈퀴처럼 생겼다. 그에게 손의 모양새는 중요치 않았다. 연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했다. 장도리와 망치 등으로 얻어터지며 배운 그의 사찰 짓는 기술은 이렇게 해서 완성됐다.

해인사 암자·성철스님 생가복원 참여

광주시는 지난달 16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목장 등 2종목을 무형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또 대목장 기능보유자로 박 대목장을 인정했다. 광주·전남지역 대목장 중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건 그가 처음이다.

대목장은 단어 그대로 큰 나무를 이용해 건물 등을 짓는 장인을 뜻한다. 특히 전통 한옥을 짓는 기술을 보유한 목수로 관청과 사찰, 민간에서 기법이 전승돼 오고 있다. 그 가운데 민간에서 전승돼오던 장인 계열을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송광사 스님에게 기술을 전수받은 임재점 대목장을 15살 때부터 따라다니며 배웠으니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120여대 가량 사찰을 짓다 보니 광주시에서도 기술과 능력을 인정해 준 것 같아 뿌듯합니다.”

박 대목장은 우리나라 3대 사찰로 꼽히는 해인사의 암자를 20여년간 20여대 지었으며, 성철스님의 생가 복원에도 참여하는 등 국내 유명 사찰 건축에 참여했다. 그는 “전통” 한옥을 짓지만 “전통”에 집착하지 않는다. 한옥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자신만의 한옥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즉각 고친다. 그렇다보니 시간과 돈은 배로 든다. 그렇다고 하루 루 짓는 법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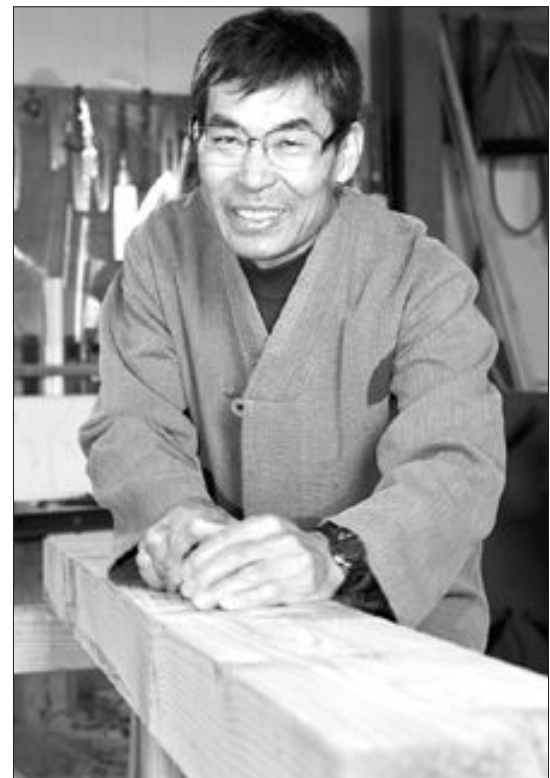
박 대목장은 “한옥은 나무를 이용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다”며 “고급 아파트 날로 늘어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옥이 가장 맞기 때문에 다시

찾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기 전에만 해도 불자들의 시주를 받은 스님들의 부탁으로 사찰을 지었지만 이젠 문화재청이 건설사에 의뢰한 후 다시 건축업자들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했다. 이렇다 보니 가장 적게 가격을 부르는 건축업자들이 사찰을 짓게 됐다. 문화재를 짓는 방식이 상업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옥은 친환경적... 각광받는 날 올 것”

박 대목장은 “사찰은 문화재다. 문화재를 수십년 후 후손들이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작품을 만들겠다’ ‘보물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은 뒤따라 주지 않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목장은 “살아 생전에 중국의 응현목탑이나 비운루처럼 신의 경지에 이른 건물을 지어보고 싶다”며 “전통건축에 관심을 갖는 후배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독도지킴이 김장훈 2억 추가 기부키로

가수 김장훈이 독도를 연구하는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에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8일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각 1억 원을 전달했던 김장훈은 ‘동해 독도 고지도 전시회’가 열리는 국회도서관 2층 갤러리에서 9일 호사카 교수와 반크의 박기태 단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한다. /연합뉴스



유도인 유준조씨 수필집 내

유도인이자 수필가로 활동중인 유준조(69)씨가 최근 수필집 ‘한판과 한방’(교문사 펴냄)을 냈다.

책은 복식선수 홍수환씨의 4천5기의 투지를 예를 들어 인생의 한 방 한판 뒤집기를 시도하라는 내용을 담은 ‘한판과 한방’ 등 90여 편의 글을 ‘노을빛 인생’ 등 6부로 나눠 엮었다.

광주 출생인 유씨는 30여 년을 체육교사로 재직했으며 전 국제유도연맹 공인심판으로 국민훈장 목조근정 훈장, 대한민국 체육상 등을 수상했다. 2004년에는 ‘현대문예’로 등단해 광주수필문학회, 광주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부모가 전남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 중인 박세일씨의 부친 박기용(법무사·왼쪽)씨가 8일 김운수(오른쪽) 전남대총장에게 대학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롯데백화점 봉사단 영아일시보호소 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빛고을나눔 봉사단은 8일 광주 영아일시 보호소를 방문해 아기 돌보기, 식사보조, 청소활동 등 생활지원봉사를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비글로 ‘히트 로커’ 아카데미 6개 부문 석권

8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남우주연상 브리지스·여우주연상 샌드라 불럭

여성 감독 캐슬린 비글로가 연출한 ‘히트 로커’가 8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했다.

‘히트 로커’는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코닥극장에서 열린 ‘제 8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한 각본상, 음향 편집상, 음향 효과상, 편집상을 수상했다.

세계영화 흥행신기록을 세운 ‘아바타’는 ‘히트 로커’와 함께 9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미술상, 촬영상, 시각효과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는데 그쳤다.

과거 부부였던 비글로 감독과 캐머런 감독의 ‘아카데미 매치’는 비글로의 완승으로 끝났다. 비글로 감독은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과 작품상, 감독

상, 편집상 등 모두 7개 부문에서 경쟁, 5개 부문에서 이겼다.

비글로 감독은 아울러 1929년 제1회 시상식 이래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히트 로커’는 이라크 참전 중인 미군 폭탄제거팀의 이야기를 담았다. 폭탄제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주인공 윌리엄 하사를 중심으로, 이라크의 현재와 파병 군인들의 정신상태를 다룬 전쟁 영화다.

‘크레이지 하트’에서 한물간 가수 역을 소화한 제프 브리지스는 생애 첫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브리지스는 1971년 ‘라스트 픽처스’로 오스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남우·주·조연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주로 로맨틱코미디와 액션 영



캐슬린 비글로 제프 브리지스 샌드라 불럭

화에 출연해 온 샌드라 불럭은 휴먼드라마 ‘블라인드 사이드’로 생애 첫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불럭은 가족을 잃고 집도 없는 10대 소년을 입양해 스타 플레이어로 키워내는 리 엔역을 연기해 호평을 이끌어냈다.

남우조연상과 여우조연상은 올해 열린 골든글로브와 미국배우조합상에서 각각 남녀조연상을 받았던 크리스토프 왈츠와 모니크에게 돌아갔다. 왈츠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연출한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서 유대인 사냥꾼 한스 란다 대령 역을 소화했으며 모니크는 ‘프레셔스’에서 주인공 ‘프레셔스’를 필삭하는 어머니 메리로 분해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연합뉴스

오은선 히말라야 8천m 14좌 마지막 등정 나서

여성산악인 오은선(44·블랙야크) 대장이 히말라야 8천m 14좌 완등의 마지막 목표인 안나푸르나(8천91m) 등정에 나섰다.

이번 등정에 성공하면 오씨는 세계 여성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8천m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게 된다.

오 대장은 8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네팔 카트만두로 출국했다. 오 대장은 한 달여 뒤인 다음 달 말 안나푸르나 정상에 도전할 예정이다. 그는 출국에 앞서 인터뷰에서 “좀 설레고 긴장되



긴 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답답하게 오르겠다”며 “작년에 한 번 갔다 와서 자신 있고 컨디션도 좋다. 꼭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히말라야 8천m급 13개 봉을 이미 오른 오은선은 앞서 지난해 하반기 안나푸르나 등정에 나섰으나 악천후에 발길을 돌렸다. /연합뉴스

안성기 광주광역시 홍보대사

(재)광주세계광엑스포는 8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친선대사로 활동중인 안성기씨를 광주세계광엑스포의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광주세계광엑스포는 광엑스포 개최기간인 다음달 2일부터 5월9일까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희망의 빛 나누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 장철호·박순이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해남에서 형제 축산을 운영하고 있는 장철호(55·사진), 박순이(50·황산면 원호리) 부부가 8일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새농민상’ 3월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사

◆MBC <지방 계열사 사장 >광주MBC 정태성 ▲폭포MBC 유창영 ▲여수MBC 송원근

◆한국인삼공사 <지사장 >전남지사장 최무영

내방

▲정재훈 (동아병원장)씨 ▲최연주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씨 ▲박향 (<보건위생과장 >)씨 ▲곽현미 (<여성일자리 창출 사무관 >)씨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강종백·홍순의씨 장남 경원군 송영순씨 사내 문 설양=13일(토) 오후 1시50분 삼부지구 조선킨벤션 웨딩 1층(춘추관)

향우회

▲재광보성회 향우회(회장 김신주)=12일(금) 오후 6시30분 송암가든. 062-674-1000. 집결지: 구 전남도청앞 오후 6시.

중친회

▲진주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강평원)=13일(토) 오전 11시 광주향교 유림회관. 062-228-3368, 062-672-700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dongfc.familynet.or.kr/)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발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립약국 탐정형외과 옆 베네슈. 062-266-665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점. 062-261-5875, 011-9614-3348.

모집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 30분~7시30분. 011-618-7882.

▲불소이 무용학원 수시모집=발레·재즈·방스댄스 등 초·중·고등부 및 성인·취미반 모집, 차량운행. 062-955-4200.

▲그림그리기, 백일장 참가안내=13일(토) 2010 광주시자원봉사사람회 부대행사 그림그리기(유치,초등학생), 백일장(중·고등학생) 김대중컨벤션센터 참가접수 및 문의 광

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무산 태권무예수원=영여·태권도(태글리쉬) 및 대체의료운동(비만,미용,양생,호신,경락심신법) 태권무지도, 남녀노소 3월계강(동구청소년수련관) 070-8235-5688, 010-3374-5699.

▲북구문화원 사회교육강좌 수강생 모집=풍수지리, 생활역학, 명심보감, 관상학, 노래교실. 062-527-7701

▲마술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2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디지털카메라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재봉틀 홈패션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11시5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8700.

▲김순덕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진경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3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색소폰 교육회원 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진월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부음

▲배말래씨 별세 광태연(전 광주일보 기자)·영동·태선씨 모친상=발인 10일(수) 그린장례식장 12호. 062-250-4455, 017-618-0540.

▲명월계씨 별세 오병문(전 교육부 장관·전남대학교 제 13대 총장)씨 상배 성훈(오성훈 피부과 원장)씨 모친상=발인 10일(수)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20-6981.

▲김홍희씨 별세 김내경·철수·철만·미영·미선·미정씨 모친상=발인 9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고익준씨 별세 승민·승철·명운씨 부친상=발인 9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227-4000

故 임수자 님(여/77세)
주/부: 김학 / 김경미 / 김희 / 김수영
차/녀: 윤옥 / 양희 / 양정희 / 양정숙
장/지: 영암 / 영암 / 영암 / 영암

故 윤환 님(남/88세)
주/부: 윤학 / 윤영 / 윤영 / 윤영
차/녀: 윤영 / 윤영 / 윤영 / 윤영

故 임기호 님(남/78세)
주/부: 임기호 / 임기호 / 임기호 / 임기호
차/녀: 임기호 / 임기호 / 임기호 / 임기호

심기교인의 명복을 빌립니다.
남은주자장 - 정갈한 음식!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입문의 1566-4499

현대종합상조 전속모범 노주현